1960년대 학생독자의 소통욕망과 잡지

- 『학원』을 중심으로 -

장수경*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60년대 『학원』에 실린 학생독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욕망하였고, 실천하고자 하였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1960년대 『학원』에 글을 실은 독자들은 중,고등학생의 십대들이었다. 이들은 학원문단, 좌담회, 독자의 편지, 클럽탐방 등 다양한 코너에 글을 게재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래 집단과 소통을 시도하였고 자신들의 생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당시 학생문화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독자들은 문학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는데, 그들은 명사들의 추천도서와 명작에 대한 독서행위를 통해 문학관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명작과 예술서적에 대한 탐독은 단순히 독서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언어적 발화행위를 통해 세상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행위로 나아갔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학생독자들은 클럽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다양한 클럽에 소속감을 갖고 사회적 실천을 통해 또래집단과 유대감을 갖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독자들은 음악, 미술, 사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도덕적 영역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는 데서 십대들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학원』의 학생독자들이 쓴 글은 인쇄지면의 수평적 발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언어를 매개로 한 발화는 학생 개개인에

* 목원대학교, dongwhasarang@hanmail.net

게 비판적 인식과 도덕적 실천으로 나아가면서 1960년대 학생문화를 선도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주제어 : 학원, 1960년대, 학생독자, 문학열기, 클럽활동, 수행적 발화, 소통욕망

목차

1. 학생독자 그들은 누구인가?	3. 비판적 인식과 도덕적 실천
2. 수행적 발화와 십대들의 소통욕망	4. 결론

1. 학생독자 그들은 누구인가?

『학원』은 195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십대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잡지였다. 『학원』 제 63호부터 4.19 이전 3월까지 편집장을 맡았던 백동주는 “매일처럼 독자의 편지가 산더미처럼 날아들었”는데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저무는 창가에 기대어 독자의 편지를 읽는 재미란 꿀맛 같”았다고 회고한다.¹ 중고등학교 시절 『학원』을 읽던 학생독자들은 청년이 되면 『사상계』의 독자가 되었다. 4.19를 전후로 한 세대들은 『학원』과 『사상계』의 독자였던 것이다. 『학원』에 실렸던 『알개전』²을 읽고 성장한 세대는 당대 지배정권과 기성세대의 가치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였고,³ 낡고 부정적인 것에 대한 혐오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 탐

1 백동주는 학원창간 4주년 기념호인 통권 63호부터 4.19혁명이 일어나기 20일 전인 3월 말까지 편집장을 맡았다.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로 이직한 백동주는 100호 기념호에서 학원 기지는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았다며 독자들의 관심이 대단했음을 이야기한다. 백동주, 『저무는 창가에서 읽은 독자의 편지』, 『학원』, 1962. 10, 66면.

2 조훈파의 『알개전』은 당대 학생독자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이 작품은 가부장적 권위와 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원종찬, 『아동문학 길라잡이-알개전』, 『중앙일보』, 2001. 8. 4, 38면.

3 천정환·정종현, 『우리가 사랑한 책들, 지의 현대사와 읽기의 풍경』, 서해문집, 2018, 99면.

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8년 4월호 학생기자 좌담회에서 향후 『학원』의 편집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일관(배재고)은 “중고등학생들과 밀접한 기사를 많이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앙케트나 설문 등을 내고 학생 기자에게 지면을 많이 할애해주시고 미흡한 기사라도 자주 실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87면) 당시 학생독자들은 잡지에 글을 쓰고, 읽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소통하였고, ‘학원세대’라는 소속감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다.⁴ 또래 집단 속에서의 글쓰기와 읽기의 경험은 학생독자로 하여금 글 즉, 언어를 매개로 사고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실천하는 행위를 수반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스틴은 인간의 발화 가운데에는 어떤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실천적 행위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윤리적 명제’는 의도되는 동시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서를 명확하게 하거나, 특정 행위를 규정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생독자들이 언어를 통해 단어나 문장으로 발화하는 것은 어떤 행동(action)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어떤 행동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행동을 수반하는 인간의 언어활동에 대해 ‘수행적 문장’(performative sentence)과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로 설명한다.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 즉 ‘수행문’(performative)이라는 용어는 ‘명령문’(imperative)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계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용어는 ‘행동’(action)이라는 명사와 함께 동사인 ‘수행하다’(perform)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오스틴은 발화자가 문장으로 발화하는 것은 인간이

4 장수경, 『학원과 학원세대』 4장, 소명출판, 2013, 257-316면 참조.

‘이러한 말을 하는 가운데(in saying these words)’, ‘무엇을 행하는 것(doing something)’인 행동(action)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⁵ 인간은 삶의 영역에서 언어를 매개로 판단하며, 언어로 이루어진 사고의 작용을 통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언어는 인간의 도덕적 영역과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⁶

이 글은 우선적으로 학생독자들이 잡지에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도덕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였는지를 『학원』에 실린 독자들의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학생독자들은 단순히 『학원』이라는 학생잡지를 읽고 향유하는 행위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특히 1964년은 군정이 공화당 정권으로 바뀐 첫 해이고, 지식인 사회에서 이념의 분화가 뚜렷이 일어나며 성장, 반공, 민족, 민주 등 지식인의 권력참여와 저항에 대한 담론 지형이 팽팽하게 논의 되던 때이다.⁷ 문학에서는 이광수의 『흙』과 『사랑』 등이 1960년대 초·중반까지 대중적 인기를 모으며 농촌근대화 과제 등과 연결되며 젊은 세대를 열광시켰다. 1960년대 후반 대중의 감성은 1960년대 초중반과 단절적이다.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개발과 성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간격이 확대되었는데, 이 시기로 오면 『흙』이나 『상록수』의 농촌계몽 기획이 점차 설득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1960년 4.19 이후부터 1967년까

5 J.L. 오스틴,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21-45면 참조.

6 박형빈, 「언어분석과 윌슨의 도덕성 요소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2008, 71-94면.

7 김건우, 「1964년의 담론 지형: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 『대중서사연구』 22호, 한국대중서사학회, 2009, 71-90면.

지 대중의 감성은 그 이전 시기나 이후와 차별적 지점이 형성된다.⁸ 이와 같은 양상은 『학원』에 실린 독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는 1960년 4.19 이후부터 1968년까지 『학원』에 실린 학생독자의 글을 중심으로 당대 학생독자들의 문화에 대한 열망과 감성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 『학원』에 실린 학생독자의 글을 보면 개인적, 사회적 의식을 확장하려고 애쓴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학생독자들은 독자투고, 좌담회, 클럽탐방 등의 발화행위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했고, 어떤 실천적 행위로 나아갔을까? 이를 추적하는 작업은 1960년대 학생독자들의 소통욕망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살피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학원세대’라 불리는 학생독자들은 1970년대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의 중추세력으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들의 발화와 실천은 사회문화사적으로 오늘날까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와 십대들의 소통욕망

1) 문학열기와 학생독자

『학원』의 학생독자들이 쓴 글을 보면 다양한 욕망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사는 독서와 문학 글쓰기에 대한 열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명작’에 대한 탐독은 당시 문학 글쓰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학

8 권보드래,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승고-이광수의 『흙』과 『사랑』의 1960년대」, 『상허학보』37, 상허학회, 2013, 279-320면 참조.

생독자로 하여금 ‘생각’, ‘지식’, ‘교양’을 이루는 근간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학생독자들이 좌담회에 쓴 글을 보면 “책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할 뿐 아니라 현세대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가는” 교양인의 가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책이란 것은 인간과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있으므로서 책이 있고 책이 있으므로서 인간이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연결하며 살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책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현세대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넓은 생각과 깊은 지식, 높은 교양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어느 것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매우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책은 읽는 이의 정도에 맞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 책을 뒤져보던 끝에 저희 학생들이 보기 위하여 모든 조건을 구비한 책은 「학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원」에서 애독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하고 싶습니다.(중략)

둘째, 저희들의 학생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우리 네동산>에서 애독자는 자기 연령의 학생작품들을 읽고 평가하며 자기 작품과 비교하며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란에서 애독자는 얼굴을 모르는 학생들과 알 수 있고 자기가 항상 의문 나는 점을 문의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 고충흠(훈)(이화여대부속중3), 「나의 생활에 펴수 없는 길잡이」, 『학원』, 1962. 10, 76면.

나) <학원>지가 단순한 지식의 주입에 그치는 교과서나 참고서 같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식의 주입도 중요하지만, 먼저 저희들 10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교양을 불러 넣어주며, 꿈과 낭만을 북돋아 주어 미지의 세계에 무한히 발전해갈 기틀 같은 것을 마련해주셔야 할 줄 압니다.

- 홍금이(대전시 대흥동), 「편집실에 온 편지」, 『학원』, 1966. 2, 42-43면.

가)를 보면 필자는 책을 읽는 것이 학생에게는 필수인데 ‘어떤 책’을 읽어야 교양인이 될 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그는 ‘무엇을 읽을까?’를 고민하다가 학생잡지 『학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한다. 첫째는 공부하는 요령과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십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여러 방면의 소설을 읽어 각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었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넷째 시사문제와 학습문제, 특집 프로 등이 있어 애독자는 국내, 국외의 세계 정세를 알 수 있고 학습문제를 풀어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인 기준으로 제시한다. 필자는 학생잡지를 통해 십대가 갖추어야 할 “모든 교양과 학과 이외의 지식 등을 얻었”다며, 『학원』은 십대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될 귀한 존재”(76면)라고 말한다. 그만큼 당시 학생독자에게 『학원』과 같은 잡지는 십대 교양인의 필수 도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일까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애독자는 자기 연령의 학생작품들을 읽고 평가하며 자기 작품과를 비교하며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란에서 애독자는 얼굴을 모르는 학생들과 알 수 있고 자기가 항상 의문 나는 점을 문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잡지의 지면이 전국적으로 상호소통이 가능한 열린 장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즉,

당대 학생 잡지는 학생독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십대의 또래집단과 공유하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생독자들은 “10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교양을 불러 넣어주”는 내용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학원』을 문화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독자들의 글에 자주 언급된 ‘명작’은 교양의 전유물로서 ‘좋은 책’의 다른 말”이고 또한 “유명한 책”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⁹ 학생독자들은 종종 ‘세계명작’이나 ‘교양서적’에 대해 실어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편집실로 써서 보내기도 하였다.

저희들로 하여금 읽어서 살이되고 피가 될 수 있는 세계명작이라든가 교양서적들을 매호마다 한권씩 선정하셔서 그 속에 담겨진 인간형이나 사상을 대충 얘기해주는게 어때요. 전에는 너무 남학생만을 위한 기사뿐이어서 그 불평도 털어놓고 실었는데, 지난 9월호에 보니까 <여학생교실>이라는 난을 설정하여 <쇼즈>만드는 법을 실었던군요. 그렇지만 너무 지면이 적은 것 같아요. 좀더 예를 들면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의법, 몸가짐법, 그리고 간단한 요리법 같은 것도 실어서 학교의 부교재 역할을 하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 윤봄시내(경기여중 3), 「큰오빠 때부터 애독했어요」, 『학원』, 1962. 10, 77면.

윤봄시내(경기여중 3학년)는 십대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세계명작”이나 “교양서적”을 선정해서 그 속에 담겨진 “인간형”과 “사상”을 함께 실어달라고 요청한다. 학생독자들은 또한 자신이 읽은 책이나 가족들이 읽은 책 중에서 ‘감동’을 준 책에 대해 잡지에 소개하고

9 박숙자, 『속물교양의 탄생』, 푸른역사, 2012, 16면.

권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학생들이 양서라고 추천한 책의 목록을 보면 세계명작이 많다. 『학원』에는 ‘학생좌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언급되는 책들도 대부분 해외 명작이다. <좋은 책만 가려읽자>는 좌담회를 보면 파스칼의 <명상록>은 프랑스 지성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가슴에 품고 갔을 정도로 명작이라고 소개된다.

가) <좋은 책만 가려읽자>

장: 파스칼의 <명상록>을 읽고 싶습니다.

오: 저도 장군과 같은 책을 읽을 생각입니다. 프랑스 지성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가슴에 품고 나갔을 정도의 명작이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아: 저는 바네프의 <소공자, 소공녀>를 읽고 알프스의 경치나 머리에 그리며 더위를 잊으렵니다.

최: <레 미제라블>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 집 누나가 이 책을 읽고 감동해서인지 앞뒷방을 돌아다니며 “오 오”를 연발하지 않겠어요. 이야기를 좀 들려 달라고 신청했더니 “오! 고젯트.”하면서 밖으로 나가 버리더군요. 우리 누나를 이 정도로 감동시키는 책을 저도 한번 읽어 보렵니다. (웃음)

김: 저도 꼭 읽을 것이 있어요. 벌써 읽었어야 했을텐데...이광수 선생님의 <무정>이란 소설입니다. 제 친구들이 소설 얘기만 나오면 꼭 끄집어내지 않겠어요.

한: 저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시절 때 읽으셨다는데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시며 꼭 읽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권: 모팻상의 <목거리>를 읽고 싶어요. 거기서 행여 여인의 인생이라도 배

을까 해서입니다.

사회: 짧은 여름방학 동안이라도 옛날부터 많은 사람이 읽은 명작, 좋은 책을 가려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지상좌담회」, 『학원』, 1964.8, 126-127면.

나) 독서는 공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무더움을 잊고 시끄러움도 모른채 양서에 취하여 독서삼매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번에 꼭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다 읽으려한다. 나폴레옹이 항상 애독한 책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참으로 좋은 책 같기 때문이다.

- 고영희(경기여고2), 「나의 중학시절의 여름방학」, 『학원』, 1966. 8, 69면.

가)에서 보면 “전국 각도의 애독자들이 즐거운 여름방학을 말한다.”라고 기획된 좌담회에서도 세계명작에 대한 열기는 대단하였다. 1964년 8월 좌담회에는 서동호 기자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모인 중고등학생 7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는 권혁란(강원여중3), 김영숙(부산여중3), 오태정(제물포고1), 이봉훈(제주 오현중2), 장원희(청주공고2), 최용범(전주북중3), 한권일(용산중3)이다. 학생기자들은 좋은 책을 서로 추천해주고 십대들이 왜 그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파우스트>의 작품은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읽기를 권하고 있다. 한권일 학생의 발화는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은 물론이고 인쇄지면을 통해 잡지를 읽는 전국에 흩어진 독자들에게도 “책 읽기를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서의 실천적 행위를 수반한다. 나의 고영희(경기여고2)의 글을 보면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방학중에 읽을 계획인데, 이 책이 나폴레옹이 애독한 책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책”

이어서 읽을 것이라고 한다. 가)와 나)와 같은 학생독자의 글은 단순히 독자에게 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기능 ‘당신도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수행기능이 동시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권유인 동시에 속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⁰

그런데 좌담회에서 언급된 책들을 보면 <명상록>, <소공자, 소공녀>, <레미제라블>, <파우스트> 등 세계명작이다. 세계명작에 대한 신뢰와 열광은 학생독자의 발언뿐 아니라 사회 명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강조된다. 이처럼 양서를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할 때 명사들이 읽은 책을 함께 소개하는 코너를 통해 추천된 도서들은 그들이 사회의 명사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준 ‘명작’이라는 사회적 규준이 적용되며 필독서로서 더욱 공고한 틀을 형성하게 된다.

① 권하고 싶은 책 ② 중학교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소설가 정비석 ① 톨스토이의 <부활>, 유고의 <레미제라블>, 토스토옙스키의 <죄와벌>

② 하디의 <테스>, 나스메소세끼의 <나는 고양이다>

동아일보 기자, 시인 강인섭 ① 센키비치의 <퀴바디스>, <어린왕자>, 신석정 시집 <촛불>, <슬픈목가> ② <김동인야담집>

소년한국일보주간 조풍연 ① <퀴바디스>, 나관중의 <삼국지>, <부활> ② 말로의 <집없는 아이>

한국외국어대학장 최완복 ① 이광수의 <흙>, H.G.Wells의 <세계문화사> ② <레미제라블>

시인 박목월 ① <퀴바디스>, <레미제라블> 블다크의 <영웅전>, <삼국지>

10 박형빈, 앞의 논문, 75면.

② 베르손의 <아르데>

시인 조지훈 ① 괴테의 <젊은 베르텔의 슬픔>, <부활>, <영랑시집>, <삼국지> ② 베리의 <피터팬>

한양대학강사 김호진 ① <전쟁과 평화>, <죄와 벌> ② 릿소의 <민약론>

작가 최덕현 ① 스타인벡의 <생쥐와 인간>, 유진오닐의 <유리동물원>,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 ② <죄와 벌>

서울대학교 교수 김해선 ① <전쟁과 평화>, <젊은 베르텔의 슬픔> ②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

작가 이기명 ① 지드의 <좁은문>, <좋은 누구를 위하여 올리나> ② 테네시 윌리엄스의 <장미의 문신>

- 편집부, 「생활특집 독서에의 안내-어떤 책을 읽을까?」, 『학원』, 1964. 10, 182-187면.

위에서 언급된 명사들의 권장도서를 보면 <부활>, <레미제라블>, <죄와 벌>, <퀴바디스>, <좁은문>, <전쟁과 평화>, <어린왕자> 등 대부분이 해외명작이다. ‘명작’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학생독자들의 문학 열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학생독자들은 명사들이 권하는 ‘명작과 예술서적’에 대한 소개를 통해 ‘독서’라는 행위를 실천해나갔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문학관을 세워나가는 계기로 삼았다. 즉, 언어적 발화행위는 실천적 행위로 나아가는 기준이 되었고 학생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잡지의 독자투고란은 문학에 심취한 십대들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 장이었다. 특히 ‘학원문단’ 같은 코너는 1960년대 새롭게 재편되는 문단의 흐름 속에서 십대들이 문예지 추천이나 신춘문에 행사에 작품을 응모하는 현상을 야기하였는데, 이것은 십

대들에게는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가며 글쓰기 문화를 확장해가는 하나의 통로였다. 1962년 경북고등학교 3학년이던 황석영이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소설 「입석부근」으로 입선, 1963년 1월 서울고 2학년이던 최인호가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에 입선하기도 하였다. 당시 학생독자들은 ‘문학을 하겠다는 뜻’보다 ‘문단에 진출하겠다는 뜻’에 더 비중을 두었다.¹¹ 당시에는 입선만으로는 작가로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들은 재차 당선에 도전해 일찍이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많았다. 당대 문단에 데뷔한 문인들 가운데 「학원문단」에서 입선한 이들이거나 『학원』의 독자인 경우가 많았다. ‘학원세대’라 불리는 학생독자들은 문학에 매개로 텍스트의 생산과 향유를 통해 나와 타인과의 관계 및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나갔다.¹² 『학원』에 실린 추천도서나 권장도서는 경기고나 휘문고, 이화여고 등 명문학교의 도서담당 교사나 작가 등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이 ‘명작’이라고 선별, 소개한 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권위를 획득하였다. 사회문화적 권위자들의 추천도서는 문학에 대한 열기를 갖고 있는 학생독자들의 필독서처럼 부각되었고, 이는 다시 전국 학생 좌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면서 ‘권하고 싶은 책’이라는 발화행위가 ‘명작 읽기’라는 ‘효과(effect)를 성취하는 실천적 행위’로 가시화되었다.

가) □권하고 싶은 책들□

우선 세계의 명작과 예술서적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그것은 독서에 있어서 가장 풍부한 분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먼저 우리가 꼭 읽어야 할 것은 <향가>, <고려가요>, 윤선도, 박일로 등의 시조, 소설로서는 <춘향전>을 비롯하

11 정규용, 『글동네에서 생긴 일-60년대 문단이야기』, 문학세계사, 1999, 110-113면.

12 장수경, 『학원과 학원세대』, 소명출판, 2013, 274-275면.

여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 <장화홍련전> 등입니다. 외국의 고전을 들면 호메로스의 <이리아드>, 단테의 <신곡>,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카레리나>, 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 로망롤랑의 <장 크리스토프> 등이 있습니다. 현대 작품을 나라별로 적어보면 프랑스에서는 뵘레브의 <마농레스꼬>, 스팅달의 <적과 흑>, 발작의 <사촌누이 벳트>, 프뢰벨의 <보바리 부인>, 모파쌍의 <여자의 일생>, 지드의 <배덕자> 등이 있고 도이치에서는 괴테의 <젊은 베텔의 슬픔>, 토마스만, 헛세 등의 작품은 꼭 읽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스페인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북유럽으로 가면 스트린드베리의 <하녀의 자식> 등은 꼭 읽어 두어야 할 책입니다. 영국은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 데포의 <로빈슨쿠루소>, 프론테의 <폭풍의 언덕>, 하디의 단편, 디켄즈의 작품들도 읽을 만한 것들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푸쉬킨의 <오네긴>, 트루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도스토예프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 톨스토이의 <부활> 그리고 체홉의 단편들입니다. 이외에 희곡을 읽고 싶은 분은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 괴테의 <파우스트>, 실라의 <발렌슈타인> 순수한 문학평론평론으로서 고전화된 것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라의 평론, 칼라일의 <의상철학> 라스킨의 평론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초보자에게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론 문학을 즐겨 읽을 수 있다면 문학 독서도 꽤 전문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편집부, 「생활특집 독서에의 안내-어떤 책을 읽을까?」, 『학원』, 1964. 10, 182-187면.

나) 소년소녀를 위해 친절히 번역된 글이라도 외국문학은 읽기가 힘들다는 감상을 이야기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외국인의 이름이

며 지명이 외우기가 어려워져서 친근감이 없다는 것과 생활방식이 달라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곧 알기 쉽게 됩니다. (중략) 소년소녀 시절에 그러한 <세계명작>을 읽는다면 그것은 오랜 인생살이의 사고방식이며 풍부한 감정, 사물의 판단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중략) 우수한 작품을 골라서 읽어야만 되겠습니다. 만화나 읽기 쉬운 읽을거리만을 읽었다는 사실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가령 중학생은 중학생에 알맞도록 번역된 작품을 읽어야만 되겠습니다. 원작이 같은 것이라도 그림책이나 만화로 된 것, 소설을 동화처럼 변안한 것과 가령 <문고본>의 번역과는 상당히 다르지요.(중략)

또 소년소녀를 위해 편집된 <세계문학> 시리즈에는 대개 책 뒤에 작자와 작품의 해설이 붙어 있으니 한 작품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는 그것을 읽고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중략) 또 같은 작품을 읽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와 다른 점에 감동을 했다거나, 같은 점에 감동을 한 사실을 서로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올라온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형수, 「소년소녀 세계문학안내」, 『학원』, 1968. 6, 88-89면.

가)의 내용을 보면 “세계의 명작과 예술서적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그것은 독서에 있어서 가장 풍부한 분야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평론 문학을 즐겨 읽을 수 있다면 문학 독서도 꽤 전문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의 내용을 보면 세계명작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고, 읽고 난후 친구들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런 다음 세계명작 작품을 소개하고, 작자와 작품의 줄거리와 해설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런 코너의 연속된 배

치는 좋은 책을 추천한 학생들의 발화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연이어 명사들의 추천과 함께 꼭 읽어야 할 책의 목록으로서 권위와 실천성을 담보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학생독자들은 학생들의 발화, 명사들의 추천, 기사 등 일련의 배치를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적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공고히 해 나갔다. 이처럼 명작이 소개되고, 명사들이 추천한 도서목록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는 당대 학생독자로 하여금 교양인의 상징적인 행위로 인식되었고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다.

2) 클럽활동과 학생독자

『학원』은 다양한 문화적 기획을 창간초기부터 시행했는데, ‘학원문학상’은 가장 대표적인 문화 기획이었고, ‘전국 중고등학생 미술전람회’, ‘학원사진전’ 등을 개최하였다. 1950-60년대 『학원』은 “마치 라디오만 있던 세상에 TV가 나타난 만큼이나 독자들을 흥분시켰”¹³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잡지의 코너들은 학생독자의 흥미를 다각도에서 이끌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클럽활동에 대한 관심에서도 드러난다. 1962년 12월호 생활특집으로 기획된 「나도 할 말이 있다-부모의 고백, 자녀의 호소」(215-225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 학부모는 ‘우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놀아라’는 제목과 함께 청소년기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남문희(경기중3)양의 어머니 윤애중은 “부디 강하고 깨끗하고 총명하게 눈을 똑바로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굳건한 기상으로 열심히 공부해주기 바란다. 어머니가 바라는 제일의

13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권, 현암사, 2004, 514면.

기대이고 네가 할 수 있는 제일의 효도다”(217면)라며 구구절절 학업에 열중하라고 당부하는 글을 실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의견에 남문희 양이 바로 그 아래 두 페이지에 걸쳐 박스 글을 함께 싣고 있는데, 제목이 “한 가지 특기를 살려주세요”라는 점에서 부모세대와는 생각의 차이를 드러낸다.

또 한가지는 특기를 하나씩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특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남에게 우열감을 갖지 않을뿐더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닐 것이지마는 그래도 줄어들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유희의 길에서 빠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어느 범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예요. 지금은 우리 또래의 중학생과 어른들은 생각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느 범위의 자유를 미달하거나 혹은 벗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중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불확실한 판단력으로 일을 그르치기 쉬울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옛날만 생각하시거나 혹은 자녀들의 앞날에만 치우쳐 우리의 생각은 무시해 버리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남문희(경기중3), 「한가지 특기를 살려주세요」, 『학원』, 1962. 12, 216-217면.

학부모는 학업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았다면, 학생독자인 남문희는 개인의 “특기를 하나씩 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다. 이 시기 학생독자들의 글을 보면 취미나 특기를 중심으로 한 클럽활동을 하는 것은 ‘우열감’에서 벗어나고 일탈을 방지하는 통로라고 말한다. 특히 위의 글은 “학생에게도 어느 범위의 자유가 허용”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는 인생의 충만한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충만한 삶이란 우정과 애정과 소속감의 삶이며, 보다 깊고 보다 의미 있는 개인적 경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가능성을 찾는 삶이다.¹⁴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당시 학생독자들에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클럽활동과 같은 단체 활동에 소속되어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삶이 제공해주는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현실적 억압을 클럽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을 통해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교외생활을 활발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 원하는 것은 좋은 목적을 위한 친구간의 클럽이나 농촌계몽운동, 그밖에도 사생활의 좋은 면을 단련하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는 어머니께서 협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 윤형주(대광중3), 「교외생활에 협력해 주십시오」, 『학원』, 1962.12, 224-225면.

대광중 3학년인 윤형주는 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목적을 위한 친구간의 클럽” 활동이나 ‘농촌계몽운동’, 그리고 ‘사생활의 좋은 면을 단련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1960년대 학생 문화의 하나로 부각된 클럽활동은 음악, 미술, 사진 등과 같은 예술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이런 클럽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글은 ‘클럽탐방’이라는 기사를 통해 그 구체성을 보여준다. ‘클럽탐방’은 전국에 있는 학생독자에게 각 지역의 다양한 클럽의 동향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글과 사진으로 소개함으로써 십대문화의 상징으로 가시화하는 데

14 제러미 러프킨,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197면.

일조하였다.

독자 여러분! 서울 시내에 몇 개의 클럽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00개 정도라면 놀랄만도 하겠지요. 전에는 탐방기사만을 실었는데 이번에 우리 모두 어울려서 가볼까요? 서대문 네거리를 지나 충정로 3가에 이르니 「신우관」이란 교회계통의 회관이 있군요. (중략) 체제는 맞고 격식도 꼭 맞고 교양제목은 “편 집을 통한 음악감상”이라고 써 있군(중략)

음악이 흐르는군요. 「타이즈의 명상곡」. 표정들이 묘하군요. 「백조」 표정이 밝아지는군요. 다음은 「개선행진곡」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는 걸 보면 학생다운 태도군요. 드뷔시의 「월광곡」. 창밖을 응시하는 눈물이 애수를 담은 듯 싶군요. 모두들 음악에도 소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봉사클럽도 이런면이 있다는 건 놀랄 사실인데요. 클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한 학생이 하얀 종이를 들고 서는군요. “우람한 종소리.....푸름을 뚫고 나아가면...”시 낭독이군. 모두들 여유가 있군요. 춘추에 한번씩 교외의 녹지대를 찾는다는 이들에겐 시상도 멋지군요. 스트라우스의 왈츠에 이어서 하이든의 「고별 교향곡」이 흐르는군요. 오늘 의 집회 일정이 끝났나보죠. “Farewell Song” 폐회노래까지 준비됐군요.

- 임영태기자, 「클럽탐방-청의회」, 『학원』, 1964. 7, 398면.

위의 글을 보면 기자는 첫 문장에서 “독자 여러분! 서울 시내에 몇 개의 클럽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난후 곧바로 “500개 정도라면 놀랄 만도 하겠지요.”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서울시내에 학생들이 활동하는 클럽이 500개 정도라는 숫자가 지닌 의미는 단순히 양적인 것을 측정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500개’라는 의미는 클럽활동이 교양을 갖춘 십대들의 대표적인 문화로 당시

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독자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발화이기도 하다. 기자는 “우리 모두 어울려서 가볼까요?”하며 무성영화에서 번사가 청중에게 말을 건네듯 독자에게 말 건넌을 통해 현장을 상상하도록 마음속 행동을 촉발시키고 있다. 위의 탐방기사는 실제 클럽활동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는 걸 보면 학생다운 태도”라고 하며 현장감을 통해 특별한 음악이 나왔을 때 특정 행동을 할 줄 아는 세련됨을 강조하고 있다. 클럽에 모인 학생들이 감상하는 음악은 「백조」, 「타이즈의 명상곡」, 「월광곡」, 「개선행진곡」, 「사랑의 기쁨」, 「고별교향곡」 등과 같이 세계적인 클래식이다. 심지어 ‘청의회’란 이 클럽은 봉사단체이다. 이런 서술방식은 ‘청의회’가 봉사단체이지만 평소에는 음악과 시낭독 등 예술적인 행사를 함께 하는 수준 높은 집단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학생기자들은 클럽탐방에 대한 취재내용을 글로 쓰면서 독자들이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도록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세계적인 음악을 감상할 때 취해야할 교양인의 표정과 몸짓 등을 이미지로 보여줌으로써 ‘교양 있는 학생다운’과 ‘고급스런 학생문화’의 표본처럼 제시하였다. 봉사단체라도 문화예술을 동시에 향유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은 전국에 흩어진 독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클럽의 수준과 가치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클럽활동은 「내 고장의 중고생을 말한다」에 실린 각 지역 학생들의 글에서 ‘개성있고’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이며 실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한다.

해마다 수재민에게 보내는 위문품이며 농촌에 보내는 서적 및 계몽사업은 전국에서 그 성적이 수위로 달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우리 서울 학생들은 인정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또한 실천에 옮기는 학생이다. 서울 깽쟁이란 말을 듣는 것과 못지않게 서울 학생은 건방지다는 말을 듣는다. 남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각 개인 개인이 개성이 뚜렷하고 주관이 센 사람들의 제2의 명칭이라고 건방지다고는 하지만 어른, 선생님, 다른 손윗사람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는데는 다른 지방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예의 바르고 착한(?) 서울 학생들이 단순히 새문화를 실천에 옮기는 그 죄로서 건방지다는 말을 듣는다. 세월이 가고 발전해 가면 우리들에게 건방지다고 불리워지는 우리 행동도 그들의 긍정 속에 빠지게 되리라. (중략)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에 대해서도 자부하고 있다. 보편화된 문화생활이며 여러 가지 국제성을 띄운 문제가 결국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우리들은 좋은 문화환경의 혜택을 받으며 태어났다.(중략)

- 어경아(이화여고2), 「내고장의 중고생을 말한다-서울 경기편」, 『학원』, 1964. 8, 306-308면.

위에서 이화여고 2학년인 어경아는 서울학생들은 ‘인정의 한계를 알고 있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학생’임을 강조한다. 또한 ‘개성이 뚜렷하고 예의 바르며, 새문화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하는 자’로 명명한다. 이런 것이 타 지역 사람들이나 기성세대가 볼 때 ‘건방지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실천이 왜곡된 인식까지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한다. “보편화된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필자의 발화는 도덕적으로 자신들의 행

동이 옳다는 판단을 ‘보편화 가능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타당함을 수용하도록 한다.¹⁵

충청도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필자는 천안에 “박우회, 학우회, 하모니클럽, 먼동, 봐인, 성우회, 셋별, 회화클럽”이 있다며 가장 오래된 클럽으로 ‘박우회’를 소개하면서 문학클럽인 ‘학우회’와 음악, 봉사 클럽 등이 활발하게 십대의 문화를 형성하고 선도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사람들은 충청도를 또한 <느림보>라 칭한다. 충청도의 느린 언어의 비유에서 나온 한 우스운 얘기가 있다. 나는 충청북도에서 출생하여 충청남도에서 이제까지 자랐다. 그래서 타지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중략) 박우회, 학우회, 하모니클럽, 먼동, 봐인, 성우회, 셋별, 회화클럽의 이름들이 내가 사는 천안의 고교생들이 맺은 문침들이다. 이중 가장 오래된 클럽이 친목, 박애, 봉사로 맺어진 박우회이다. 문학도로써 맺어진 학우회, 음악을 주로 하여 기타 다방 예술면으로 활동하는 하모니클럽, 먼동, 봐인, 성우, 셋별은 봉사로 맺어진 클럽이다.(중략) 충청도의 소박한 입김 속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오늘도 내일도 굳이 평화스럽게 우리의 충실성을 잃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서남석(천안여고2), 「내고장의 중고생을 말한다-충청남북도편」, 『학원』, 1964. 8, 314-316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에 대한 열정은 모든 지역에서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전라남북도편을 보면 송강 정철, 윤선도 등 문화적 생체가 있는 전라예술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학생들

15 박형빈, 앞의 논문, 78면.

의 클럽활동도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조상대부터 뛰어난 유산으로 전수 받았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정통성도 매우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송강(정철), 윤선도, 춘향이를 낳은 이 고장은 다분히 문화적 생체가 짙은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이 그걸 뒷받침해준다.(중략)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예능방면에도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지내는 동안 길러진 예민한 감수성은 많은 문제를 낳고 게다가 끈덕진 집착력과 인내력은 여러 방면의 묘기를 터득시켜 <전라예술>하면 어디다 내어놔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게 또한 사실이다.

- 김만옥(광주조대부고2), 「내고장의 중고생을 말한다-전라남북도편」, 『학원』, 1964. 8, 318-321면.

광주 조대부고 2학년인 김만옥은 “끈덕진 집착력과 인내력은 여러 방면의 묘기를 터득시켜 <전라예술>하면 어디다 내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하다고 말한다. 자기 지역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향토문화와 클럽활동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대 학생문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경상남북도의 경우에는 시화전, 미전, 학생발표회 등 문화도시 대구의 위상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문학회나 다양한 클럽활동이 경상도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방학 중 눈부신 활동의 근간이라고 부각시킨다.

대구 역전의 문화관은 시화전, 미전으로 한산한 날이 없고, KG홀이나 기타 여러 곳의 강당들이 빈번한 학생들의 발표회로 꽉 차 쌓는 걸 보면 문화도시 대

구의 관록이 여기서 붙게 되었는데도 모른다.(중략)학생들의 과외클럽활동도 굉장히 활발하다(중략) 개중에는 문학회도 있고 종교단체 내의 모임이나 남녀혼성 클럽도 찾아볼 수 있다. (중략) 향토 인사들의 중앙 진출이 많은 반면 향토 특히 농촌활동에 정신을 쏟는 학생들의 활동도 무시 못한다. 이들의 눈부신 활동은 방학 때마다의 유난스런 계몽대 파견과 농촌출신 학생들의 대부분이 농업방면으로 나서보겠다는 다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중략) 농촌출신 학생들로 구성된 학우회라든지 농촌사업클럽의 농촌계몽, 노력봉사, 농촌출신학생의 결속 등의 활동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힘찬 가슴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 김건중(대구경북고2), 「내고장의 중고생을 말한다-경상남북도편」, 『학원』, 1964. 8, 322-325면.

김건중(대구경북고 2학년)은 “과외 클럽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점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농촌 활동에 정신을 쏟는 학생들의 활동”도 눈부시다고 말한다. 농촌사업클럽의 경우에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힘찬 가슴들의 보금자리”라며 ‘옳은 일’로 평가한다. 이는 윌슨이 주장한 도덕적 영역에서 ‘옳음(right)’과 ‘그름(wrong)’과 같은 가치의 매김이 독자로 하여금 ‘옳음’이라고 가치판단이 수행된 것에 대해 그러한 행위를 타인이 추구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¹⁶ 점에서 파급효과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으로 ‘옳음(right)’에 대한 표현은 언어로 발화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연관성이 있다.

16 박형빈, 앞의 논문, 79-84면.

3. 비판적 인식과 도덕적 실천

1960년대 학생독자들이 기고한 글을 보면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언어를 통해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언어로 매개된 사고의 작용을 통해 특정 행동으로 연결 지으며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하려고 애 쓴 흔적이 보인다.

학생기자 하정식(문태고)은 경향신문 부편집국장인 조세형와 세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학생기자들은 정채봉(평양농고 2), 김만옥(조대부고), 이순(배화여고) 등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활동했다.

가) 정식 : 선생님 그런데 요센 또 이상한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의 할렘이란 곳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아마 난장판을 벌여 피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 같은데서도 이상한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선생님 : 그렇지. 그제 소위 요셋말로 인종전쟁이란 거지. 가령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민족이 다른 경우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크게 번져 대판 싸움으로 확대되는게 많지. 미국의 인종전쟁이란 피부색같이 검은 흑인과 백인의 싸움인데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지.

정식 : 그럼 이번 할렘에서 흑백인이 싸우게 된 발단은 뭐죠? 왜 하필 할렘에서 그렇게 인종싸움이 치열하죠?

선생님 : 할렘이란 곳은 뉴욕시 안에 들어 있는 곳인데 여기엔 미국에서도 제일 흑인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 생활이 제일 비참한 일종의 흑인빈민가라 하고 있지. 그런데 지난 7월 18일 파셀이란 한 흑인에게 백인경찰이 총을 쏘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거든. 그러니까 가뜰이나 백인

이라면 이를 갈고 사는 할렘 흑인들은 파웰 소년이 개죽음을 하자 참았던 분통이 터져 하구 백인들에게 대들기 시작한 것이지.

- 하정식, 「오늘의 움직임-이상한 싸움 인종전쟁」, 『학원』, 1964. 9, 159면.

나) ◇ 돈에 좌우되지 말라

광주시 학동 1구109번지 김만옥

예술은 진실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예술이 있다면 그건 마치 (검은 안경으로 보는 낡은 낱알)과 같은 겁니다. 지금 홍수군은 엉뚱한 지역에서 방황하고 있으나 난 홍수군에게 어떠한 책임도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군이 생각하는 <인생과 예술과 돈>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홍수군, 그러니 자중하십시오. 잘만 한다면 군은 텔레비전 문제를 웬만치 해결하여 군이 지망하는 연극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못된 청년 김 삼준에게 군을 대신하여 조소를 보내고 결코 돈에 좌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7월호 <어떻게 할까>를 읽고 보내 준 독자들의 의견」, 『학원』, 1964. 8, 257-258면.

가)의 대답 내용을 보면 ‘인종전쟁’에 대한 학생기자의 생각이 간접적으로 전체 글의 논조를 통해 드러난다. 미국에서 벌어진 흑백문제나 중국에서 일어난 소수민족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학생기자인 하정식의 인터뷰 내용은 차별적인 미국과 중국의 사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독자로서 하여금 ‘옳음(right)’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기자의 기사 내용은 ‘인종전쟁’이라는 단어를 통해 도덕적 영역에서 인간의 평등이나 존엄성의 문제

에 대해 깊이 숙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생독자의 이성적 활동을 기사를 통해 매개하고 있다. 나)에서 ‘돈에 좌우되지 말라’의 경우에서도 “예술은 진실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학생독자로 하여금 현대인에게 있어 돈이 중요한 경제활동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술을 매개로 할 때는 ‘진실’이라는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독자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은 이 시기 독자코너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이슈 중 하나였다. ‘옳음(right)’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내용은 교정의 미담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학생들이 갖춰야 할 도덕적 가치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황익수(삼척중3)는 「은밀하게 행한 미담」이란 글을 싣고 있다.

가) 미담하면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미담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점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착한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우리들 사회에 끼쳐지는 영향은 어떠한가? 나는 여기서 그 한 예로서 우리 삼척중학교 3의 A반의 선으로 뭉쳐진 미담한 토막을 소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 1개월 전이다.(중략) “응, 그런데 한가지 슬픈 뉴스가 있다. Y군의 아버지께서 어제저녁 세상을 버리셨어!”

“뭐? 그 애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심한 충격 같은 것이 전신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중략) 가난한 환경속의 Y군은 평소에 말이 적으며 학우들이 가장 신임하는 학생이었다.(중략) 7교시 H·R시간이었다. K군과 S군의 눈물어린 하소연에 학급반아이들은 너도나도 아낌없이 주머니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다. 이런 모금운동이 암암리에 행해진 지 3일 후 Y군의 집앞에 모여 선 나와 몇몇 학우들의 손에는 때국 묻은 돈 765원이라는 거액이 쥐어져 있었다. 우리는 Y군의 눈물을 보았다. 그후 3개월분의 교납금이 학우들의 정성어린 손으로 모금되었다. 그로 인하여 Y군은 슬픔 속에서도 갱생하게 되었다. (중략)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시골의 S학교의 3A class에도 인정의 화염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른 학급,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까지도 알지 못하는 숨은 중에 이루어진 미담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 황익수(삼척중3), 「은밀하게 행한 미담」, 『학원』, 1962. 12, 232면.

나) 어려움 속에 시달리는 연평중 친구들에게 향학열에 불타 미비한 시설 밑에 모든 시름과 고달픔을 잊고 선생님의 낮은 목소리에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을 연평중 학생들의 얼굴을 그려봅니다.....부디 모든 고역을 웃음으로 넘겨 내일의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우도 작은 섬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신의 가호 있으시기를 빕니다.

- 편집부, 「100만애독자 우정의 자금캠페, 연평중학 돕기운동」, 『학원』, 1964. 8, 78면.

가)의 내용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점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도덕적 인간이 수행해야 할 역할로서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어려운 지역인 연평중학교 돕기 운동에 가난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들이 강조된다. 기부문화에 대한 선행의 강조는 자신이 소유의 정도와 관계없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에 선을 행하는 존재로서 가능하다라는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

고 있다. 오스틴은 인간은 발화를 통해 사고하는 것뿐 아니라 실천성을 담보로 하는 일정한 행동까지 수반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행위를 적절하게 수행했다고 하려면 수행적 발화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옳은 방향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도덕적 약속이란 단지 말을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정신적인 행위이다.¹⁷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학생독자들은 자신이 내린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언어를 통해 발화하고, 현실생활에서 실천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나의 발화와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옳은” 것을 실천하도록 돕는다.

가) <작은 일이라도 착한 일을 하자>

한 : 중 3이라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 계몽에 나서기는 어렵겠고 대신 우리 집땅인 약 300평 가량의 채소밭이나 가꾸고 집일도 틈틈이 도우렵니다.

오: 제가 다니는 학교는 group 생활이 잘 되어 있어서 방학이 아니더라도 일요일엔 교외에 있는 농장에 나가서 농부와 같이 김도 메고 모도 심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클럽에서는 1주일의 camping 을 가진 뒤 1주일에 한번씩 토론, 오락, 봉사를 할 작정입니다.

권: 걸 스카웃 멤버인 저도 아주 작은 일, 예를 들면 일에 바쁜 주부들의 어린 아이를 돌봐 주는 일이나, 작업에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보기 좋은 의복을 만든다든지, 살아있는 상록수의 주인공이 될 노력들을 기울이기로 했어요.

- 「지상좌담회」, 『학원』, 1964. 8, 126-127면.

17 오스틴, 앞의 책, 31면.

나) 서해안에 자리잡은 안면도와 부석면 창리 사이, 천수만에서 선박이 엮어 지는 순간, 초겨울의 찬물에 구사 일생으로 뛰어들어 9명의 승객을 구출해 내어 교정엔 물론 사회에 흐뭇한 감정이 오가곤하여, 이 지방 화제 거리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인 은인이 바로 충남 서산농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춘복군이다.(중략) “저 많은 생명의 피끓는 젊은이가 바라만 보고 외면해야 옳단 말인가? 아니다. 나의 최후의 모험이 얼마나 많은 생명에 이바지 할 것이냐?”가 떠 올랐다고 한다. (중략) 지금도 김군은 그때에 좀 더 빨리 행동을 취했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구출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후회만을 되뇌이며 서운한 표정을 지은다.

- 조규선 기자, 「교정에 핀 미담 한토막: 아홉사람의 생명을 구출」, 『학원』, 1965. 2, 413면.

가)의 독자의 글은 농촌계몽에 나설 수 없는 처지로서 자신의 집 땅에 채소밭을 가꾸거나 틈틈이 집안일을 돕는 것, ‘작은 선행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상좌담회에 실린 글을 보면서 학생독자들은 도덕적인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고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학습하는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토론자는 ‘틈틈이 도우렵니다.’, ‘봉사를 할 작정입니다’, ‘노력들을 기울이기로 했어요’ 등의 서술을 통해 자신의 봉사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는 이후에 선행을 실제로 행할 것을 약속하는 발화이다. 아울러 학생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좌담회에 참석한 학생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공감한다면 실제로 자신의 생활에서 그러한 선행을 행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받는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는 전복된 선박을 보고 한겨울에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9명의 생명을 구한 김춘복(서산농림고 2)의 선행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김군이 “좀더 빨리 행동을 취했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구출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인의 목숨을 구출하는데 있어서는 빠른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위와 같은 도덕적 토의의 장은 학생독자로 하여금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의 물음에 가능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원』에서 행해진 좌담회나 공개 토의의 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역할을 하였다.¹⁸ 즉, 『학원』은 1960년대 학생독자의 글을 통해서 전국의 흩어진 독자들이 도덕적 실천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행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 글은 1960년대 『학원』에 실린 학생독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욕망하였고, 실천하고자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1960년대 『학원』에 글을 실은 독자들은 중,고등학생의 십대들이었다. 이들은 학원문단, 좌담회, 독자의 편지, 클럽탐방 등 다양한 코너에 글을 게재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래 집단과 소통을 시도하였고 자신들의 생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당시 학생문화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8 John Wilson, 남궁달화 역, 『도덕교육 방법의 실제』, 한국학술정보(주), 2001, 71-106면 참조.

첫째, 학생독자들은 문학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는 명사들의 추천도서와 명작에 대한 독서행위를 통해 문학관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명작과 예술서적에 대한 탐독은 단순히 독서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언어적 발화행위를 통해 세상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행위로 나아갔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학생독자들은 클럽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다양한 클럽에 소속감을 갖고 사회적 실천을 통해 또래집단과 유대감을 갖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독자들은 음악, 미술, 사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도덕적 영역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는 데서 십대들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위의 두 가지 발화행위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과 함께 학생독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장이 되었고, 이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열띤 소통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독자들은 독자투고를 통해 언어를 매개로 사고의 작용을 통해 올바른 행동으로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이끌고자 하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1960년대 학생문화는 무엇을 하겠다는 발화행위를 통해 기부, 봉사활동 등 도덕적 실천을 이끄는 힘으로 작동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학원』의 학생독자들이 쓴 글은 인쇄지면의 수행적 발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언어를 매개로 한 발화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판적 인식과 도덕적 실천으로 나아가면서 1960년대 학생문화를 선도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학원』, 1960.1~1968. 12.

2. 논문 및 단행본

김건우, 「1964년의 담론 지형: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 『대중서사연구』22호, 한국대중서사학회, 2009, 71-90면.

권보드래,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승고-이광수의 『흙』과 『사랑』의 1960년대」, 『상허학보』37, 상허학회, 2013, 279-320면.

박숙자, 『속물교양의 탄생』, 푸른역사, 2012.

박형빈, 「언어분석과 월슨의 도덕성 요소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2008, 71-94면.

원종찬, 「아동문학 길라잡이-알개진」, 『중앙일보』, 2001. 8. 4, 38면.

장수경, 『학원과 학원세대』 4장, 소명출판, 2013.

정규용, 『글동네에서 생긴 일-60년대 문단이야기』, 문학세계사, 1999.

천정환·정중현, 『우리가 사랑한 책들, 지의 현대사와 읽기의 풍경』, 서해문집, 201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권, 현암사, 2004.

Jeremy Rifkin,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John L. Austin,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John Wilson, 남궁달화 역, 『도덕교육 방법의 실제』, 한국학술정보(주), 2001.

Abstract

Desire of Communication and Publications for Student
Readers in 1960s

– Focusing on Hakwon

Jang, su kyu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what the student readers desired and practiced around the articles on Hakwon (a periodical published in 1960s) in the 1960s. Readers posting articles on Hakwon in the 1960s are mostly teenagers in middle and high schools. They posted articles in various corners of academic literature circle, round-table sessions, letters of readers, visits to clubs and so forth in an attempt to communicate with peer groups that are scattered nationwide and it may be concluded as initiating the student culture at the time since they displayed willingness to practice what they thought.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it may be summarized in two-fold.

First, those student readers had extremely high passion on literature and the foundation is prepared to establish the view on literature through the reading activities on the recommended books and master pieces of well-known personnel. In addition, reading on master pieces and art books did not stop at simple reading activity but to proceed to the practical activity to realize their own thoughts in the world through the linguistic conversation act.

And, second, those student readers displayed high interests in the club activities and hold the sense of belonging with the peer group through the social practice with various clubs. In this process, those student readers participated in various culture and art activities, such as, music, art, photography and the like, to formulate the unique culture of teenagers for facilitating it as the venue to learn and practice the value on 'right or wrong' in the ethical territory.

As shown from the above, the articles written by those student readers of Hakwon was the turning point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the performative utterance in the articles and the communication with such language as a medium could show the socio-cultural implication as it led the student culture in 1960s for each individual student to come forward to the critical perception and ethical practice.

- Key words : Hakwon, 1960s, Student Readers, Passion on Literature, Club Activities, Performative Utterance, Desire of Communication
- 논문접수일: 2019. 4. 30. / 심사기간: 2019. 6. 2. ~ 2019. 6. 7. / 게재 확정일: 2019. 6. 12.